

고대중국어 명사화표지 ‘所’, ‘者’, ‘之’의 통일과정 연구*

이소동**

<目 次>

1. 서론
2. 고대중국어 명사화표지의 역사적 발전과정
 - 1) 명사화표지 ‘所’의 역사적 발전과정
 - 2) 명사화표지 ‘者’의 역사적 발전과정
 - 3) 명사화표지 ‘之’의 역사적 발전과정
3. 근대중국어 명사화표지 ‘底’의 탄생배경 재고
4. 결론

1. 서론

현대중국어 的字구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底字구조는 당말 오대의 變文과 『祖堂集』 등의 불경문헌에서 최초로 보인다. 이 시기 底字구조는 현대의 的字구조에 비해 출현빈도나 기능면에 있어 불완전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的字구조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씩 갖추게 된다. 근대중국어의 底字구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的字구조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劉敏芝의 연구¹⁾에서 비교적 상세히 논증된 바 있다.

근대중국어에서 底字구조의 탄생은 고대중국어의 명사화표지 所, 者, 之(字구조²⁾)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구조의 명사화 기능을 底字구조가 그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8023595).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1) 劉敏芝, 『漢語結構助詞的歷史演變研究』, 語文出版社, 2008年.

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분산되었던 고대중국어의 명사 화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底字구조로 통일되고 계승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기존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者字 유래설과 之字 유래설의 의견차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점점 者字 유래설에 비중이 좀 더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두 설이 명확히 대조되고 있지만 각각의 주장이 삼고 있는 논거는 공통적으로 '底'와 '者', '之'의 음운과 어법기능의 유사성이다. 王力은 특히 음운의 유사성으로 인해 之字 유래설을 주장한 바³⁾ 있지만 吳福祥의 분석에 의하면 조사로써 者字의 음은 중고시기 이미 底와 거의 동일했음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운방면에서의 논증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법 방면에서의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2가지의 순차적인 방법에 따라 이들의 전승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고대중국어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명사화표지 '所', '者', '之'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파악하여 삼자간의 기능 확대와 축소 상황을 살펴본 다음, 底字구조의 탄생 초기에 해당하는 『敦煌變文集』, 『祖堂集』에 출현하는 底字구조와 者字, 之字구조의 기능분석과 비교를 통하여 이들의 전승관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2. 고대중국어 명사화표지의 역사적 발전과정

고대중국어 명사화표지 所, 者, 之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축소, 확대되면서 근대중국어의 底字구조로 대체되는데, 본 장에서는 이들 명사화구조에 대해 당말 底字구조가 탄생할 때까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底字구조로의 전승에 어떠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의 대

2) 고대중국어에서 명사화표지는 학자에 따라 '夫', '也' 등도 언급되지만 본문에서는 '底'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3종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3)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2007.

4)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研究』, 岳麓書社, 1996, 323-326쪽.

상으로 삼은 문헌은 『史記』, 『三國志·魏書』, 『世說新語』, 『祖堂集』으로 각각 서한과 위진, 남북조, 그리고 底字구조가 출현하는 당말의 언어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 문헌이며, 이들 문헌에 출현하는 명사화구조의 지칭대상, VP유형, 어법 위치와 그 출현빈도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 기능의 성쇠를 살피고자 한다.

1) 명사화표지 '所'의 역사적 발전과정

명사화표지 '所'는 문장에서 '所VP' 명사화구조를 이루어 VP의 목적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所殺"이 지칭하는 것은 동사 '殺'의 목적어인 죽인 객체가 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所VP'구조의 목적어 지칭은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엄격히 지켜져 왔으며, 의미격상으로 볼 때 객체뿐만 아니라 장소, 대상, 원인, 방법, 유래 등을 지칭하는데, 이는 이러한 의미성분들 모두 동사, 혹은 개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볼 때, '所VP'구조는 근대중국어의 底字구조로 흡수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능의 축소 및 출현빈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진에서 위진 때까지의 구체적인 기능변화를 살펴보면 '所VP'구조의 지칭성분과 VP의 유형 및 출현빈도에 있어 점점 객체 단일 지칭과 동사단독 유형으로 단일화, 간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⁵⁾

'所VP'구조의 이러한 기능축소는 남북조와 당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데, 각각 그 대표문헌인 『世說新語』와 『祖堂集』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世說新語』에서 '所'자는 모두 288례가 출현하는데, 그중 '爲(NP)所VP'의 피동구조가 36례, '所', '墓所', '所以', '所由', '發所', '周馥所', '墓所' 등의 명사용례 17회, 이미 어휘화 된 '所謂'가 11회 출현하며 아래와 같은 접속사 '所以'의 용례도 6회 포함하고 있다.

(1) 官本是臭腐, 所以將得而夢棺屍: 財本是糞土, 所以將得而夢穢汗.
『世說新語·文學』(관이란 본래 부패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장차 얻을 무렵이 되면 꿈에 관과 시체를 보며, 재물이란 본래 똥과 같아서 장차 얻을

5) 李昭東, 『三國志』所字구조 연구, 『中國文化研究』제18집, 2011년.

무렵이 되면 꿈에 더러운 것을 본다)

宋紹年, 李曉琪(1991)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중국어 접속사 '所以'의 탄생은 판단문의 서술어 위치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所以VP'구조가 서술문의 복문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의 위치로 재분석 되는 과정을 거쳐, 늦어도 위진시기에는 출현을 하였다.⁶⁾ 따라서 『世說新語』에서 접속사 '所以'는 아직 그 맹아 단계로 형식적으로 접속사임을 확증 지을 수 있는 기준은 없으나 의미적으로 접속사 용례임을 확인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다. 所字의 상기 용례를 제외한 비교적 순수한 변환지시(轉指)용법의 '所VP'구조는 모두 218례이다.

다음으로, 『祖堂集』에 출현하는 所字는 모두 385개인데, 그 중에 피동구조가 3례, 명사용례가 32례, '所謂'가 3례, 그리고 접속사 용법 73례와 오류로 보여 지는 4례를 제외하면, 순수한 변환지시구조로서의 '所VP'구조는 모두 270례에 해당한다. 『世說新語』와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접속사의 용례가 급속하게 늘어난 점인데, 이는 이미 원인을 나타내는 '所以VP'구조에서 접속사로의 기능전환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世說新語』와 『祖堂集』에 출현하는 '所VP' 명사화구조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상고시대부터 당대까지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도록 『史記』와 『三國志』에 출현하는 '所VP'구조와 함께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所VP'구조의 문헌별 지칭성분과 그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所字구조의 문헌별 지칭성분과 그 출현빈도⁷⁾

| | 객체 | 장소 | 방법 | 원인 | 내원 | 간접대상 | 기타 | 합 |
|------|---------------|-------------|--------------|--------------|------------|------------|-----------|------|
| 『史記』 | 1170 (67%) | 106 (6%) | 202 (11%) | 230 (13%) | 27 (2%) | 15 (1%) | 5 (0%) | 1755 |

6) 宋紹年 李曉琪, 「所以再認識」, 『紀念王力先生九十誕辰文集』, 山東教育出版社, 1991, 367쪽.

7) 표1에서 표4의 통계 가운데 『史記』와 『三國志』에 관련된 수치는 李昭東의 『史記指稱化現象研究』, 『三國志』 所字구조 연구, 『三國志』 VP者 구조 연구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 | | | | | | | |
|--------|--------------|-------------|------------|------------|--------------|-------------|-------------|-----|
| 『三國志』 | 638 (74%) | 87 (10%) | 68 (8%) | 51 (6%) | 12 (1.2%) | 7 (0.7%) | 3 (0.1%) | 866 |
| 『世說新語』 | 182 (83%) | 8 (4%) | 5 (2%) | 18 (8%) | 2 (1%) | 0 | 3 (2%) | 218 |
| 『祖堂集』 | 239 (89%) | 24 (8%) | 0 | 2 (1%) | 5 (2%) | 0 | 0 | 270 |

상기했듯이, 漢代에서 위진으로 넘어오면서 '所VP'구조의 객체 지칭빈도가 74%에 달하는데, 남북조와 당대로 오면서 더욱 더 심화되어 『世說新語』에서 83%, 『祖堂集』에서는 89%까지 육박하여 지칭성분에 있어 객체 지칭으로 거의 단일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祖堂集』에서 방법이나 원인을 지칭하는 '所VP'구조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는 '所以VP'구조가 더 이상 "VP하는 방법, 원인"을 나타내는 명사화 용례가 아닌 '所以'가 단독으로 순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所VP'구조의 문헌별 VP유형과 그 출현빈도를 살펴보자.

표2. 所字구조의 문헌별 VP유형과 그 출현빈도

| | 동사 | 수식 | 술목 | 술보 | 연합 | 연동 | 합 |
|--------|---------------|--------------|------------|-------------|--------------|-------------|------|
| 『史記』 | 1021 (58%) | 608 (34%) | 49 (4%) | 18 (1%) | 40 (2%) | 19 (1%) | 1755 |
| 『三國志』 | 621 (72%) | 216 (25%) | 9 (1%) | 2 (0.2%) | 16 (1.6%) | 2 (0.2%) | 866 |
| 『世說新語』 | 175 (80%) | 37 (17%) | 0 | 1 (0.5%) | 2 (1) | 3 (1.5%) | 218 |
| 『祖堂集』 | 262 (97%) | 6 (2%) | 2 (1%) | 0 | 0 | 0 | 270 |

표2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단독 동사로 충당되는 '所VP'구조의 출현빈도가 남북조, 당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심화되어 『祖堂集』에서는 97%의 비율로 거의 대부분의 용례가 '所+동사'의 형태로 단일화된다.⁸⁾ 특히 '所+동사'의 형태 가운

8) '所+동사'구조 가운데,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로 충당되어 먼저 동사화가 발생한 경우

데, '所說', '所言', '所在', '所生', '所知' 등 이미 어휘화 추세를 보이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所VP'구조가 이미 응용력이 풍부한 어법구조에서 고정된 어휘구조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즉 후대로 갈수록 '所VP'구조가 지칭성분 및 VP유형과 그 출현빈도에 있어 어휘화, 단일화로 발전됨은 '所VP'구조의 기능축소를 의미하며 후대에 몇몇 어휘로 고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的字구조에 자연스럽게 병합되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명사화표지 '者'의 역사적 발전과정

주지하듯이, 고대중국어에서 者字는 所字와 더불어 대표적인 명사화표지로 所字에 비해 자기지시기능(自指)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변환지시기능에 있어 所字구조가 VP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반면 者字구조는 주어(主)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VP者'구조인 '殺者'는 동사 '殺'의 주어인 죽인 주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고대중국어에서 주어는 의미격상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 공구, 대상, 원인 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VP者'구조가 이들 의미격을 지칭하는 용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VP者'구조의 자기지시기능은 후대로 가면서 쇠퇴하는데, 『史記』에서 476례이던 것이, 『三國志』에서 110례, 그리고 『世說新語』에서 9회, 『祖堂集』에서 20례로, 각 문헌의 글자 수를 감안한다면 시대적으로 점점 그 출현빈도가 현저히 떨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지시 명사화표지의 유무가 선택인 상황에서 간결한 표현을 구사했던 언어대중이 자연적으로 무표지 명사화구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반면 변환지시기능의 'VP者'구조는 당말까지 비록 현저하게 발달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꾸준하게 그 기능을 지속해 나간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世說新語』와 『祖堂集』에 출현하는 者字구조의 몇몇 기능 비교를 통하여 변환지시의 者字구조에 대한 역사적 발전상황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먼저 『世說新語』에서 者字는 모두 211회 출현한다. 그 중 자기지시구조 9회, 조건과 원인을 나타내

가 존재하는데, 『世說新語』에서는 명사 7례, 형용사 6례, 『祖堂集』에서는 명사 4례, 형용사는 1례로 총당된 용례가 있다.

는 용례가 각각 7회와 2회, 그리고 複指대명사 28회를 제외한 165회가 변환지시 기능의 'VP者'구조에 해당된다. 같은 명사화구조 '所VP'의 출현빈도 218례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다음으로, 당대의 『祖堂集』에 출현하는 者字의 횟수는 모두 1007회인데, 그 중 자기지시구조 20례, 조건과 원인을 나타내는 용례가 각각 31례와 3례, 이미 어휘화 된 용례 321례, 複指대명사 237례, 그리고 아래의 지시대명사 용례 39개를 포함한다.

(2) 師平生預有一言：“者老漢去時，大吼一聲了去。”『祖堂集·巖頭和尚』(선사가 평소에 예언한 말이 있으니, 즉 “이 늙은이가 갈 때에는 한바탕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리라” 한 것이다.)

여기서 '者'는 현대중국어 근지대명사 '這'의 초기 필법으로, 呂叔湘, 志村良治에 의하면 『敦煌變文集』, 『祖堂集』 등의 당대 문헌에서 '者', '這', '遮' 등의 필법으로 처음 출현하고 있다. 『祖堂集』에서 어휘화 된 者字 321례는 문헌의 특성상 '佛者', '尊者', '侍者', '使者', '行者', '道者', '學者' 등의 불교 용어가 반복되어 출현하고 있으며, 복지대명사 237례는 '古者', '夫沙門者', '何者' 등 시간사, 명사, 대명사 등과 결합하거나, '人所難者'와 같이 '所VP者'의 형태, 그리고 “阿者无也, 難者染也”처럼 품사에 상관없이 단어를 설명하는 용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祖堂集』에서 상기의 용례를 제외한 순수한 변환지시의 'VP者'구조는 346례로, 전체 者字의 용례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며, 者字의 기능면에서도 지시대명사 용례가 새로 출현한 것 이외에 한대나 위진 남북조대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시대별 'VP者'구조의 지칭성분 및 VP유형, 그리고 그 출현빈도의 비교를 통해 그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3. 'VP者'구조의 문헌별 지칭성분과 그 출현빈도

| 지칭성분 | 주체 | 대상 | 객체 | 목적 | 간접객체 | 겸어 | 합 |
|-------|---------------|---------------|-------------|-----------|-------------|-------------|------|
| 『史記』 | 1212 (51%) | 1007 (43%) | 108 (4%) | 9 (1%) | 5 (0.5%) | 4 (0.5%) | 2345 |
| 『三國志』 | 394 (52%) | 334 (44%) | 17 (2%) | 3 (1%) | 3 (1%) | 1 | 752 |

| | | | | | | | |
|--------|--------------|-------------|-----------|-----------|---|---|-----|
| 『世說新語』 | 132 (80%) | 27 (17%) | 5 (2%) | 1 (1%) | 0 | 0 | 165 |
| 『祖堂集』 | 245 (71%) | 98 (28%) | 3 (1%) | 0 | 0 | 0 | 346 |

상기했듯이, ‘VP者’구조는 VP의 주어를 지칭하고 또한 의미격상 주체와 대상이 주어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그 지칭성분 역시 주체와 대상이 거의 대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 문헌마다 주체와 대상을 지칭하는 ‘VP者’구조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대로 갈수록 더욱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祖堂集』에서는 객체주어를 지칭하는 3개의 용례를 제외한 99%가 주체 및 대상 성분을 지칭하고 있다.

표4. ‘VP者’구조의 문헌별 VP유형과 그 출현빈도

| VP | 동사 | 형용사 | 술목 | 수식 | 술보 | 연합 | 연동 | 주술 | 합 |
|--------|--------------|--------------|--------------|--------------|------------|-------------|-------------|--------------|------|
| 『史記』 | 572 (24%) | 437 (19%) | 569 (24%) | 492 (21%) | 51 (2%) | 102 (4%) | 110 (5%) | 12 (0.5%) | 2345 |
| 『三國志』 | 183 (24%) | 87 (11%) | 182 (24%) | 162 (22%) | 4 (1%) | 42 (6%) | 76 (10%) | 16 (2%) | 752 |
| 『世說新語』 | 56 (34%) | 24 (15%) | 41 (25%) | 30 (18%) | 0 | 4 (2%) | 7 (4%) | 3 (2%) | 165 |
| 『祖堂集』 | 85 (25%) | 85 (25%) | 82 (23%) | 66 (19%) | 3 (1%) | 7 (2%) | 11 (3%) | 7 (2%) | 346 |

위의 표는 ‘VP者’구조의 문헌별 VP유형과 그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4종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VP유형상 동사, 형용사, 술목, 수식구조가 서로 비슷한 비율로 출현빈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통계수치로 볼 때 ‘VP者’구조의 두드러진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祖堂集』에서 동사로 충당되어 있는 ‘VP者’구조는 모두 85례인데, 그 중 동사화 된 명사로 충당되고 있는 경우가 18례로, 역대 문헌과 비교해볼 때⁹⁾, 특이하게 수치가 높은 편이다. 18례

9) 3종 문헌에서 명사로 충당되고 있는 용례는 『史記』 20례, 『三國志』 4례, 『世說新語』 3례이다.

중 거의 대부분이 '中者', '外者', '前者', '後者', '中下者(2)', '上者', '上上者(3)', '東者', '北者'와 같은 방위사이며 그 외 '口者', '高格者', '歧路者', '漸証實際之者(2)', '頓証實際者' 등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고 있다. 'VP者'구조에서 VP가 방위사로 충당되는 용례는 고대중국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기타 명사로 충당된 용례 또한 당대만의 특이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별 'VP者'구조의 지칭성분 및 VP유형, 그리고 그 출현빈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VP者'구조는 새로운 기능인 지시대명사가 당대에 새로 탄생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지칭성분에 있어 점점 더 주체나 대상 위주로 단일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명사화표지 '之'의 역사적 발전과정

흔히 'NP之VP'라 불리는 之字구조는 고대중국어에서 'VP者'구조와 더불어 대표적인 유표지 자기지시구조이다. 위의 者字 용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중국어에서 유표지 자기지시구조는 표지의 비강제성으로 'VP者'구조가 점점 사라진다. 'NP之VP'구조도 마찬가지인데, 王洪君에 의하면, 남북조 초기에 이미 구어에서 거의 사라지며, 이는 당 개원 년간에 처음 생겨난 底字구조보다 더 빨라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시사했다.¹⁰⁾ 실제 『世說新語』와 『祖堂集』에 출현하는 'NP之VP'구조는 각각 60(23)례와 29례로 거의 대부분이 문어체로 倣古에 불과하다.

3. 근대중국어 명사화표지 '底'의 탄생배경 재고

근대중국어어시기에 底字구조의 탄생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쟁점은 그 유래에 대해서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者' 유래설,

10) 王洪君, 「漢語表自指的名詞化標記“之”的消失」, 『語言學論叢』 第14輯, 商務印書館, 1987, 162-169쪽.

‘之’ 유래설, ‘之’, ‘者’ 공동 유래설, 지시대명사 ‘底’ 유래설, 방위사 底 유래설 등이며,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설은 呂叔湘, 太田辰夫, 曹廣順, 吳福祥 등이 주장한 ‘者’ 유래설이다. 그 이유는 ‘者’와 ‘底’가 음운과 어법기능 면에서 가장 흡사하기 때문인데, 吳福祥은 ‘者’가 조사일 때 중고음은 [tu]가 되고, ‘底’는 [tei]가 되는데 경음화이후에 두 글자의 운모 차이가 크지 않으며 기타 방언지역에서는 u와 ei를 혼용하기도 하여 ‘者’와 ‘底’의 음운이 거의 같음¹¹⁾을 논증한 바 있다. 어법 기능면에서 보면, ‘底’는 당대의 탄생 초기부터 고대중국어의 者와 之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之’字 유래설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지만 劉敏芝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이에 대해 논증한 바 있는데, 먼저 고대중국어 所字의 기능을 겸하면서 영역을 확대한 ‘者’를 ‘底’가 대체한 후 점차 ‘之’의 영역까지 대신하게 되었다¹²⁾는 것이다.

필자는 劉敏芝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재고해볼만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底의 탄생 초기 문헌인 『敦煌變文集』과 『祖堂集』에 출현하는 底字의 기능 고찰을 통하여 者字와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劉敏芝의 분석에 따르면, 『敦煌變文集』과 『祖堂集』에 출현하는 之字 가운데, 명사성구조는 각각 15례, 203례이며 그 기능 별 출현빈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5. 『敦煌變文集』, 『祖堂集』 내 底字의 기능별 출현빈도¹³⁾

| | | 『敦煌變文集』 | | 『祖堂集』 | |
|--------|------|---------|---|-------|-----|
| N+底 | | 3 | | 17 | |
| N+底+N | | 0 | | 5 | |
| A+底 | | 0 | | 9 | |
| A+底+N | | 1 | | 6 | |
| VP+底 | | 3 | | 40 | |
| VP+底+N | VP底O | 8 | 8 | 27 | 126 |
| | VP底S | 0 | | 89 | |
| | 자기지시 | 0 | | 10 | |
| 총계 | | 15 | | 203 | |

11)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研究』, 岳麓書社, 1996, 323-326쪽.

12) 劉敏芝, 『漢語結構助詞的歷史演變研究』, 語文出版社, 2008年.

13) 劉敏芝, 『漢語結構助詞的歷史演變研究』, 語文出版社, 2008年, 51-52쪽.

『祖堂集』에 출현하는 之字구조는 『敦煌變文集』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위의 명사성구조 이외에 동사성성분과 결합하는 용례도 상당수 출현하고 있어 현대중국어의 的字구조와 큰 차이가 없다. 두 문헌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는 유형은 'VP+底+N'의 구조이며, 다음으로 'VP+底', 'N+底' 구조 순이다. 아래에서는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VP+底

'VP底'구조는 『敦煌變文集』에서 3례가 출현하며, 『祖堂集』에서는 40례로 'VP底N'구조에 이어 2번째로 출현빈도가 높다. 『敦煌變文集』에 출현하는 3례는 모두 변환지시의 명사화구조인데, 모두 동작의 객체를 지칭하고 있다.

(3) 此是俗文作底. 「維摩詰結講經文」(이것은 속문으로 지어진 것이다)

(4) 阿城道底是那. 「維摩詰結講經文」(阿城이 말한 것은 그것이다)

만약 底字가 者字를 직접 계승했다면, 者字의 기능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체 지칭 변환지시의 명사화용법인 'VP者'구조가 초기의 'VP底'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VP底'구조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이 출현하고 지칭성분 또한 객체가 아닌 주체여야 함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VP者'구조가 고대중국어 주어의 성격상 '所VP'구조가 주로 지칭하는 객체, 공구, 원인 등도 지칭하면서 그 기능을 확장시켜 왔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후대로 올수록 점점 주체 지칭 위주로 단일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VP底'구조가 그 탄생 초기에 해당하는 『敦煌變文集』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를 지칭하는 3례만이 출현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VP底NP'유형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祖堂集』에서 'VP底'구조는 출현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객체, 주체, 공구, 결과 등의 다양한 성분을 지칭하는 용례들이 출현하고 있다.

(5) 師曰:“乞眼精底是眼不?”「雲巖和尚」(눈동자를 비는 것이 눈인가?)

(6) 夾山云：“這個猶被老僧坐却底。”〔落浦和尚〕(협산이 말하길, 이것은 오히려 노승에게 억누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7) 師曰：“默底是？說底是？”對曰：“默底是。”〔雲巖和尚〕(선사가 말하길: 잠자코 있는 것인가? 말하는 것인가? 대하여 말하길: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

(5)의 ‘乞眼精底’에서 底字구조는 술목구조 ‘乞眼精’의 주체를 지칭하고 (6)의 ‘坐却底’에서는 객체를 지칭하고 있다. 또한 변환지시의 명사화 외에도 예(7)의 ‘默底’, ‘說底’처럼 ‘默’, ‘說’의 동작 자체를 지시하는 자기지시의 명사화도 출현한다. 그 출현빈도를 보면, 주체지시가 15례, 객체지시가 11례, 자기지시가 11례 나타나고 있다. ‘VP者’구조에 비해 출현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주체지시와 자기지시 기능에 있어서 양자 간의 계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敦煌變文集』과 『祖堂集』에 출현하는 ‘VP底’구조를 통해 보건데, 탄생초기에는 객체를 지칭하는 ‘VP者’구조의 소위 변두리 기능에서 시작하여 점차 객체뿐만 아니라 주체를 지칭하는 주요 기능과 자기지시 기능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VP+底+N

『敦煌變文集』에서 ‘VP底N’구조는 8례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며, 『祖堂集』에서 역시 이보다 훨씬 증가한 126례로 기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敦煌變文集』의 ‘VP底N’구조에서 VP와 N의 의미관계상 N은 모두 VP의 객체성분인데, ‘VP底’와 N이 동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敦煌變文集』에서 ‘VP底’구조는 모두 객체를 지칭하는 셈이 된다. 고대중국어에서 ‘VP者’구조 또한 뒤에 명사가 출현하는 ‘VP者N’의 동격구조가 출현하지만 그 출현빈도는 지극히 낮다.

(8) 項王怒, 將誅定殷者將吏. 『史記·陳丞相世家』(항왕이 노하여 은을 정벌한 바의 장수와 관리들을 죽이려 하였다)

(9) 十二月生者豚, 一宿蒸之. 『齊民要術·養猪』(12월에 태어난 바의 돼지를 하룻밤동안 찜다.)¹⁴⁾

예(8)의 'VP者'구조 定殷者將吏에서 명사 '定殷者'는 '將吏'와 동격이며 '定殷'의 주체인 '將吏'를 지시하고 있다. 'VP者'구조가 주체를 지시하는 건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만 위의 예시처럼 명사의 앞에 위치하여 동격으로 쓰이는 용례는 비록 '皇皇者花', '翩翩者雛'처럼 『詩經』에서부터 출현하지만 지극히 적으며, 남북조시대 들어와 예(9)처럼 'VP底N'구조가 주체가 아닌 객체를 지칭하는 용례도 드물게 보이기 시작한다. 'VP者'구조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敦煌變文集』에 'VP底N'구조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또한 모든 'VP底'구조가 객체를 지시하는 점은 底字가 者의 기본적인 기능을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敦煌變文集』에 출현하는 객체 지시의 변환지시구조 'VP底'와 'VP底N'은 고대중국어에서 '所VP'구조의 전형적인 기능이다. 또한 남북조에서 당대로 들어오면서 'VP者'구조의 다른 용례들이 아주 드물게 출현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으로 단일화되고 간단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VP底'가 'VP者'를 계승할 초기엔 'VP者'의 기본 기능이 아닌 부차적이거나 새로 생겨난 기능부터 대체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祖堂集』에서 'VP底N'구조는 이미 'VP者'의 주체 지시 기능을 많이 흡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주체 지칭 용례는 객체 지칭 용례 27례를 훨씬 능가한 89례가 출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기지시의 용례가 10례 출현하고 있다.

(10) 進曰：“除得一翳底人還稱得向上人也无？”「惠能和尙」(하나의 백태를 없앤 사람은 위로 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11) 是你三家村里男女、牛背上將養底儿子作摩生投這個宗門？「慧忠國師」(그대들은 서너 집이 모여 사는 시골 촌뜨기들의 등에 업히거나 소 등에 업혀 키워진 아이인데, 어찌 이런 종문에 출가할 수 있겠는가?)

(12) 困山云：“上座行脚底事作摩生？”「雲居和尙」(곤산이 이르길: 그대가 행각을 다니던 일은 어떠했는가?)

14) 예(8)(9)에서 'VP者N'구조를 수식구조로 보아 '은을 정별한 장수와 관리', '12월에 태어난 돼지'등의 의미로 풀면 더 자연스러운 듯하나, 이러한 구조의 출현빈도가 극히 낮으며 者字구조의 기능상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당대에 底者구조로 발전하여 수식구조인 之字구조를 흡수하기 위한 충분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의 '除得一翳底人'에서 '除得一翳底'는 바로 뒤의 '人'과 동격으로 주체를 지칭하고 있으며, 예(11)의 '養的兒子'에서 '養的'는 '兒子'와 동격으로 의미관계상 객체를 나타낸다. 예(12)에서 '上座行脚底事'는 '上座行脚底'는 '事'의 내용으로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나타내는 자기지시의 용례로, 이는 고대중국어에서 'VP者' 구조가 아닌 之字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용례이다.

(13) 於是(燕昭王)問伐(齊)之事. 『史記樂毅列傳』(이에 연소황은 제를 벌한 일에 대해 물었다)

(14) 魏王以秦救之故, 欲親秦而伐韓, 以求故地. 『史記魏世家』(魏왕은 秦이 구해준 연고로 秦과 화친하여 韓을 정벌하여 옛 땅을 요구하려 하였다)

위의 예시에서 VP인 '伐齊'와 '秦救'는 각각 事와 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 자체를 지칭하는 자기지시에 해당하는데, 이는 바로 'VP底NP'가 'VP之NP'¹⁵⁾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VP者N'의 출현빈도가 극히 낮은 환경에서 『祖堂集』내 'VP底N'구조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물론 'VP底N'구조의 기능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之字구조와의 관련 또한 간과할 수 없다. 之字구조와의 상관성과 계승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VP底'구조의 탄생 초기에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객체지시의 'VP底NP'구조는 가장 보편적인 동격구조를 나타내던 '所VP+NP'구조를 계승한 것이다. 물론 양자를 연결시킨 매개체는 '所VP'구조를 흡수했던 'VP者'구조이다. 따라서 처음에 'VP底NP'구조는 명사화구조 'VP者'가 뒤의 NP와 동격을 이루는 동격구조 'VP底+NP'로, 'VP하는 바인 NP' 정도의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동격구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대중들에 의해 재분석되는데, 즉 명사화표지로서의 '底'가 일종의 관형격조사로 인식되면서 'VP하는 NP'의 의미를 가진 수식구조 'VP+底+NP'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재분석은 동격구조가 갖는 중복성에대한 언어대중들의 회피와

15) 劉敏芝에 의하면 고대중국어에서 '(S)V지O'는 출현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모두 VP가 자기 지시를 가리키는 용례를 두고 말한다.

경제적 언어구사 습관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형성된 'VP底NP'는 당시까지의 가장 대표적인 수식구조였던 之字구조까지 자연스럽게 아우르면서 VP뿐만 아니라 NP, A(형용사) 등의 성분이 충당되고, 예시(14)와 같은 자가지시의 용례도 출현하는 등 강한 생산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상기한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所VP+NP → (VP者) → VP底+NP(동격구조) → (재분석) → VP+底+NP(수식구조)

③ N+底 / N+底+N

'N底'구조는 『敦煌變文集』에서 3번 출현하는데 '上頭底', '東斗底', '西頭底'로 모두 방위사로 충당되고 있다. 『祖堂集』에서 역시 17례 중 8례가 방위사로 충당되고 그 외에 대명사가 5례, 보통명사가 2례, 수량사가 2례 충당되고 있으며, 두 문헌에서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두 문헌에 출현하는 대부분의 'N底'구조의 용례는 선진시대부터 당대까지 출현빈도는 극히 낮으나 'NP者'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참고로 『史記』에 출현하는 'NP者'구조의 용례는 모두 22례인데, 방위사가 포함된 '其中者', '最下者'를 비롯하여, 보통명사로 충당된 '山者(산에 사는 사람)', '門者(문을 지키는 사람)', '荒服者(황복에 거주하는 자)', '田者(밭 가는 자)' 등과 수량사로 충당된 '五月者(5월에 태어난 자)', '六雙者(여섯쌍으로 된 것)' 등이 있는데, 이들은 분명 복지대명사나 자가지시가 아닌 변환지시의 명사화로 『祖堂集』의 'N底'구조의 용례들과 별 차이가 없다.¹⁶⁾ 단 아래의 용례는 당 이전에는 볼 수 없었다.

(15) 國師云: “這個是馬師底, 仁者作學生?” 『祖堂集·西堂和尚』(이것은 마선사의 것이다. 그대의 것은 무엇인가?)

(16) 洞山云: “就師乞眼精。”師曰: “汝底與阿誰去也?” 『祖堂集·雲岩和尚』(동산이 말하기를: 스님께 눈동자를 빌겠습니다. 선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것은 누구에게 주었는가?)

16) 敏芝는 변환지시의 'N底'구조가 위진 남북조때 비로소 출현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54쪽), 분명 재고의 가치가 있다.

예문 (15)(16)의 ‘馬師底’, ‘汝底’는 현대중국어의 ‘馬師的’, ‘汝的’과 완전히 동일하며 일반명사 가운데 사람명사나 인칭대명사로 충당되어 ‘底’가 나타내는 사물 명사와 강한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수식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당대 이후로 者字구조 역시 이러한 용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17) 麥地占他家, 竹園皆我者. 『寒山詩』(보리밭은 남의 집을 차지했고 대밭도 나의 것이라네)

‘我者’는 사실 者字구조의 변환지시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대명사 ‘我’가 ‘在我’로 먼저 동사화한 다음 者字구조에 참여하여 ‘나에게 있는 것’ 정도의 의미로 명사화 한 것이다. 단지 인칭 대명사로 충당되어 강한 소유관계를 나타냄으로써 현대중국어의 ‘我的(나의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底N’구조는 『敦煌變文集』에서는 출현하지 않으며, 『祖堂集』에서 4회 출현하는데, ‘大業底人(「云居和尚」)’과 3회의 ‘志人底苗稼(「長慶和尚」)’가 그것이다. 당대까지의 者字구조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용례로 劉敏芝는 底字구조가 탄생한 이후 지의 기능을 곁했기 때문¹⁷⁾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N底’구조를 ‘VP底’구조의 확장형으로 본다면, ‘N底N’구조 역시 ‘VP底N’의 확장구조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명사로 충당되고 있는 ‘志人底苗稼’는 재분석이 일어나기 전의 동격구조 ‘VP者+N’이라기보다 재분석후의 수식구조인 ‘VP+底+N’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④ A+底 / A+底+N

‘A底’구조는 『敦煌變文集』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祖堂集』에 9례가 출현하는데, 모두 성질형용사로 충당되고 있다.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관계로 ‘A底’구조는 모두 대상주어를 지칭하는 명사화구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VP者’와 함께 ‘A者’는 者字구조의 가장 기본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VP底’구조와 마찬가지로 탄생 초기에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者字의 주요기능을 조금

17) 劉敏芝, 『漢語結構助詞的歷史演變研究』, 語文出版社, 2008年, 51쪽.

씩 흡수하기 시작하던 『祖堂集』에 와서야 그 출현빈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A底N'구조는 두 문헌에서 각각 1례와 6례가 출현하고 있는데, '好底事(「無常經講經文」)', '不安底上座(「洞山和尚」)', '達底人(「玄沙和尚」)' 등처럼 모두 'A底'가 대상주어를 지칭하며 뒤의 명사와 동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祖堂集』에서는 之字구조의 흡수로 말미암아 'VP底N'구조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더 이상 동격구조가 아닌 수식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에서 『敦煌變文集』과 『祖堂集』에 출현하는 底字구조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는데, 고대중국어에서 위의 모든 유형이 출현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者字구조이다. 之字구조에서 출발하여 者字구조로의 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之字 유래설은 위의 6종 유형 가운데 'N底N'유형만이 之字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출현빈도 역시 상당히 낮다. 또한 단순한 수식구조에서 명사화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의 확대에 대한 동기를 찾기 어려워 양자 간 전승관계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대중국어에서 3종의 명사화구조는 '所VP', 'VP者', 'NP之VP'는 각자의 차별된 기능을 잘 수행해 왔다. 그 중 'VP者'구조가 가장 광범위 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所VP'구조가 지칭하던 객체와 공구, 수단 등의 의미성분을 지칭할 수 있었으며, 'NP之VP'구조의 자기지시 기능 또한 겸비하고 있었다. 즉 'VP者'구조는 명사화 방면에서 태생부터 '所VP', 'NP之VP'구조를 흡수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번성함과 동시에 두 구조의 쇠퇴를 가져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번성은 'VP者'구조를 계승한 'VP底'구조에 의해서였다. 'VP底'구조는 당대 들어와 'VP者'구조의 변두리 기능부터 조금씩 계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VP底'구조의 출현 유형을 보면, 객체지칭의 'VP底NP'와 'V底' 그리고 'N底' 등으로, 모두 'VP者'구조의 출현빈도가 지극히 낮은 용례들이며, 『祖堂集』에 가서야 'VP者'의 핵심 기능인 주체 지칭의 'V底'와 'A底'구조가 대량 출현하였으며, 수식구조로서의 之字구조의 기능 또한 흡수하여 'VP底NP'유형이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후대로 갈수록 '所VP'와 'VP者'구조는 어휘화된 몇몇 용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VP底'구조에 흡수된다.

3. 결론

중국어의 역사상 당대는 어법방면에서 볼 때 큰 변혁의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3종으로 나뉘어져 있던 명사화표지가 당대에 '底'로 통일이 된 것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건이었고, 학자들은 그 통일과정에 대해 수많은 공과 시간을 할애해 왔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者字유래설에 가장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필자도 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본문에서는 고대중국어 명사화표지 '所', '者', '之'의 역사적 발전 상황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통일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고대중국어의 명사화표지 '所', '者', '之'의 선진부터 당대까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 所字구조: 후대로 갈수록 어휘화 된 용례가 많이 출현할 뿐만 아니라 지칭 성분에 있어 객체 위주로, 충당되는 성분에 있어 동사 단독으로 점점 단일화되는 추세를 띤다.

(2) 者字구조: 所字구조와 동일하게 점점 어휘화되는 용례가 많아지며 지칭 성분에 있어 주체 위주로, 충당되는 성분에 있어 동사, 형용사 단독으로 단일화되는 추세를 띤다. 그러나 所字구조와 달리 'VP者', 'A者'의 기본적인 유형 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객체를 지칭하는 'V者', 주체를 지칭하는 동격구조 'V者N', 'N者' 등의 부차적인 유형들이 선진부터 꾸준히 출현한다.

(3) 之字구조: 선진 시대 왕성했던 명사화구조 'NP之VP'구조가 후대로 갈수록 쇠퇴하여 남북조시대에는 몇몇 방고용례들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지며, 거의 대부분이 수식구조 'N之N'의 형태로 당대까지 왕성하게 출현한다.

당대에 들어와 底字구조가 처음 출현하면서 이들 명사화구조를 조금씩 대체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VP者'구조의 부차적 기능 계승 : 먼저 'VP者'구조와의 차별화를 위해 'VP者'구조의 부차적인 기능을 계승한 객체 지칭의 'V底'와 'V底N'구조, 그리고 'N底'구조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5) 底字의 기능확대: 底字구조는 탄생이후 다음의 3가지 방면에서 기능이 확대된다.

① 'VP者'의 부차 기능 확대: 'VP者'의 부차적 기능을 계승한 객체 지칭의 'V底'와 'V底N'구조, 그리고 'N底'구조가 더욱 광범위하게 출현한다.

② 'VP者'의 주요 기능 흡수: 'VP者'의 주요기능을 흡수하여 주체 지칭의 'VP者', 'A者' 등의 유형이 현저히 증가한다.

③ 之字구조의 기능 흡수: VP저NP가 동격구조에서 수식구조로 바뀌면서 고대중국어의 전형적인 수식구조였던 之字구조 즉 'N之N' 구조를 흡수한다.

〈參考文獻〉

-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0年.
李昭東, 『『三國志』所字구조 연구』, 『中國文化研究』 제18집, 2011년.
李昭東, 『『三國志』'VP者'구조 연구』, 『中國言語研究』 제39집, 2012년.
劉敏芝, 『漢語結構助詞的歷史演變研究』, 語文出版社, 2008年.
宋紹年, 「古代漢語謂詞性成分的指稱化與名詞化」, 『上古漢語語法論集』, 語文出版社, 1999.
宋紹年 李曉琪, 「所以再認識」, 『紀念王力先生九十誕辰文集』, 山東教育出版社, 1991.
王洪君, 「漢語表自指的名詞化標記“之”的消失」, 『語言學論叢』 第14輯, 商務印書館, 1987.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研究』, 岳麓書社, 1996.
曹廣順, 『近代漢語助詞』, 語文出版社, 1995.
呂叔湘, 「論底, 地之變及底字的由來」, 『漢語語法論文集』, 商務印書館, 1984.
靜 筠禪僧編, 『祖堂集』, 中州古籍出版社, 2001.
靜 筠禪僧編/김월은 옮김, 『조당집』, 동국역경원, 2008년.

〈中文提要〉

从汉语语法史上看，唐代是语法变化最大的时期。其中，古代汉语的三种指称化标记‘所’，‘者’，‘之’统一为‘底’字结构是最大的变化。因此，很多学者对‘底’的来源发表意见，但还没达成共识。目前为止，‘者’字来源说是被人们最广泛认可的。本文基本上同意‘者’字来源说，通过考察古汉语三种标记‘所’，‘者’，‘之’在『史记』，『三国志』，『世说新语』，『祖堂集』四部文献里出现的情况，详细论述了此三种名词化标记的历史发展并统一为‘底’的过程。其具体情况如下：(1) ‘所VP’结构的简单化：从先秦到唐代，‘所VP’结构提取成分和VP类型的绝大多数是受事和单个动词，并且发生词汇化现象的深化。(2) ‘VP者’结构的简单化：从先秦到唐代，‘VP者’结构提取成分和VP类型的绝大多数是施事、当事和单个动词、形容词。但是与‘所VP’结构不同，‘VP者’结构里还出现提取受事的和‘VP者NP’，‘N者’等类型，但出现频率极少。(3) ‘NP之VP’结构的消失：到南北朝时，除了几个仿古用例之外，‘NP之VP’结构基本消失。(4) ‘VP底’结构继承‘VP者’结构的次要功能：‘VP底’结构诞生的初期，先继承了‘VP者’结构的次要功能，即继承了提取受事‘VP者’和‘VP者NP’，‘N者’等结构。(5) ‘VP底’结构的功能扩大：随着时间的推移，‘VP底’结构在三个方面上夸大功能：①强化VP者结构的次要功能②继承并发展VP者结构的主要功能③吸收‘N之N’结构。

關鍵詞：‘VP底’结构，‘所VP’结构，‘VP者’结构，『祖堂集』，『世說新語』

이 논문은 2015년 7월 22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